

# “소주 2잔 마셨는데 감지기 빨간불”

### 연말 음주단속 ‘제2윤창호법’ 적용...0.03% 이상 2회 적발 ‘철퇴’

### 5시간 전 마신 와인도 0.028% ‘아슬아슬’...“운전대 잡지 말아야”

16일 오후 10시23분, 서울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 시흥1C 방면 도로에서 경찰이 야광봉을 들고 흰색 SUV 차량을 세웠다. 경찰이 들이민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음주 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니 0.037%가 나왔다. 이날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걸린 첫 음주운전 사례다.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역과 난곡사거리 사이 남부순환로에서 경찰관 6명과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흥1C 방면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막아서고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처음 적발된 30대 남성 A씨는 서울대입구 인근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제2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면 훈방 조치 대상이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0.03%부터 적발이 가능해졌다.

A씨는 ‘제2 윤창호법’ 이전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어 이번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다.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단속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모든 경찰서가 시간대는 다르지만 매일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며 “시작한 지 6분 만에 적발한 건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하루 평균 1~2건 정도 적발했었는데 그나마 윤창호법 도입 이후엔 많이 줄었다”며 “이번 주만 해도 이들 연속 적발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직전 이들 동안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이날은 모두 두 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오후 10시49분쯤 경찰이 내민 음주 탐지기가 다시 한번

‘뽕’ 소리를 내며 빨간불을 냈다. 음주 탐지기에 적발돼 흰색 소형차에서 내린 20대 여성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법 개정 이전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이 구간의 처벌은 징역 1~2년에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더 늘어났다.

B씨는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 근처인 신림역 부근에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또 적발 이후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음주 단속은 다음 날 새벽 1시까

지 이어졌다. 오후 11시52분쯤 검은색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도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로 나와 훈방조치됐다. 해당 운전자는 약 5시간 전에 와인 한 병을 마셨다고 했다.

이날 단속을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음주운전 가족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술 드시고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조금만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라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2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 ◆ 단신 ◆

### 광양항서 선박 기름유출...병커C유 50ℓ 유출 추정

광양 해상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 해경이 방제작업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35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원료부두에서 320톤급 급유선 A호가 3만3057톤급 화물선 B호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공급라인이 파손되며 병커C유 약 50ℓ(추정)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이날 기름유출로 10×20m와 20×30m 크기의 기름띠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사고가 나자 해경은 오염해상에 이종으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방제정, 화학방제함, 구조정 등 합정 12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 13세 소녀 성매수 남성 4명 항소심도 벌금형

13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B씨(33)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거나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10만~15만원을 B양에게 주고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순천시 대학통학버스 도로 공사장 트럭 충돌

22명이 탄 대형버스가 도로포장 공사 현장의 1톤 화물트럭을 받아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16일 오후 6시40분쯤 전남 순천시 동순천 IC 근처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45인승 순천대 통학 차량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의 신호안내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A씨(68)와 학생 16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6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트럭에는 다행히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버스는 시험 기간을 맞아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던 여수 방면의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2대 훔친 중학생 2명 입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15)과 B군(14)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카렌스와 레조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를 둘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차에는 차기가 모두 있었다.

A군 등은 레조 승용차 1대를 훔쳐 몰다 인근에 버리고, 1시간 후에 카렌스 승용차를 다시 훔쳐 경기 김포, 안산, 화성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다녔다. 이들은 화성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귀가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인천 연수구에서 2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 “돼지 보내고 싶다”...“현대판 장발장”에 쏟아지는 ‘온정’

### 배고파서 우유 훔친 ‘부자’ 사연에 기부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부자를 돕겠다는 온정이 답지고 있다.

17일 인천 중구 영종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기준 1200만원의 성금이 기탁됐다.

또 쌀은 100kg를 넘어섰고 우유·라면 등 식료품은 수북이 쌓

였으며 방한복·점퍼 등 의류도 들어왔다. 한 할머니는 “뉴스를 보고 찾아왔다”며 직접 담근 김치를 놓고 갔고 “돼지 한 마리를 보내고 싶다”는 주민도 있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온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 A씨(34)와 아들 B군(12)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영

종도의 한 마트에서 우유, 사과 등을 훔치다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발각됐다.

마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연을 들어보니 부자는 그날 아침, 점심을 굶었다. “너무 배고파서 해선 안될 일을 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A씨는 몸을 벌벌 떨었고 옆에 있던 B군은 고개를 떨군 채 울었다.

택시 기사를 하던 A씨는 당뇨와 갑상선 질병으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었지만 홀어머니, 둘째 아들(7) 등 네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든 상태였다.

딱한 사연에 마트 측은 부자를 선처했고 경찰은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시켜줬다. 마트 인근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현금 20만원을 찾아와 부자에게 주고 곧바로 사라졌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마트, 식당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